

<http://dx.doi.org/10.17703/JCCT.2016.2.1.45>

JCCT 2016-2-4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詩學’ 과 칸트의 ‘미학美學’

A Study on Aristotle's ‘Poet’ and Kant's ‘Aesthetics’

최성열*

Sungyoul Choi*

요약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란 독자로 하여금 행복을 줄 수 있고, 치료적 효과를 안겨줄 수 있는 것으로 말한다. 그는 이것을 고유한 형상을 복원한다는 의미로 재현再現이라고 하였다. 이에 칸트는 재현뿐 아니라 미학으로 표현되는 시에는 자유가 있어야 더 격상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의 미감적 판단의 독특성을 ‘지성과 상상력의 자유로운 유희의 결과’ 라고 하였다. 칸트의 말은 예술적 창조의 정신이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도덕적 이념과 결합하는 데서 최고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고 한 것이다. 필자는 이에 독자의 입장에서 소통과 유희를 더해야 한다고 여긴다. 왜냐하면 시는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 그 밑바탕에 소통과 유희가 어우러져야하기 때문이다.

주요어 : 시학, 미학, 행복, 자유, 예술

Abstract: Aristotle said 'Poet is that from who can give happiness, therapeutic effects to the reader.' He say to '*mimoumenon*' it means a native Image restored. However, Kant said that Aesthetic is requested not only reappearance but freedom. This result is that between joyful freedom and reason of the judgement of tasted feeling. Because Art ever created is the spirit of the moral ideals, and those who combine the best of the joy. I think need to more communication and joy than their theories. For poet is replaced to be communicated and joyful for our happiness and freedom.

Key Words : Poet, Aesthetics, Happiness, Freedom, Arts

1. 서론

한편의 시는 인간이 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아름다운 노래’ 를 만들어내는 시작과 과정이며, 그 결과이다. 어떤 글이 시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시는 아니다. 물론 내용이 좋다고 해도 시적 형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시가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적 운율이 있어야 하며 시가 요구하는 문학적 격이 있어야 한다. 이에 필자는 고대 철

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과 근대철학자인 칸트가 말하는 ‘미학’ 을 비교하면서 ‘시의 미학’ 을 논하겠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적 견해는 비극적인 요소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매우 심오한 내용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오해의 소지(素地)가 있을 수 있다. 다만 그가 말한 ‘쾌’ 즉, ‘매우 기뻐하는 일’ 이 과연 비극에서 발생할 수 있는가를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논할 것이다. 그리고 칸트가 미적 감각의 입장에서 미에 대해 주력적으로 말하는 ‘지고한

*정회원, 전북대학교 철학과(교신저자)

접수일자: 2015년 8월 16일, 수정완료일자: 2015년 11월 27일
게재확정일자: 2016년 1월 8일

Received: 16 August 2015 / Revised: 27 November 2015

Accepted: 8 January 2016

*Corresponding Author: paulci@daum.net

Dept.: Philosophy Dept. of Chonbuk Univ.

예술적 자유'가 무엇인가를 살펴졌다. 필자는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세기의 언어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의 시적 견해를 예로 들어 '참다운 시'가 무엇인지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 현대시가 추구하는 미의 감각을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가 말하는 시학을 응용하여 필자의 작은 생각으로 개진하겠다.

II.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1.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란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유(思惟)'에 대해 '지(theoria),' '행(praxis),' '제작(製作, poiesis)'으로 구분하였다. 이 제작 가운데 어떤 것은 대상에 대한 '모방(imitation)' 또한 '재현(reappearance)'으로 나누어 생각하였으며 이 중심에는 운문, 노래, 춤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시'에 대해서만큼은 그 본질이 규범적이면서 기술적이라고 보았다.¹⁾ 아리스토텔레스는 '시 예술'을 이해하려면 현존하는 비극의 실제 특징을 기술이나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무엇이 훌륭한 비극을 만드는가에 초점을 두었다.²⁾ 특별히 이 '비극'에 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만의 참신하고 독특하며 생의 역설(패러독스)이 돌아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니코마크스의 윤리학'에서 인간의 목적인 선을 규정하는 것과 맥락이 같은 것으로 비극이 하나의 '고유한 쾌(oikeia hedonē)'가 여타의 '모방물'들과 함께 공유한 것으로 이해했다.

여기에서 참으로 묘한 특징은 '쾌'라는 것이 어떻게 '연민과 공포에게 비롯되는 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에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청중의 공포와 연민을 강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주인공은 우리와 닮아야 한다고 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사물 중에는 그것을 직접 마주대할 때는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재생해 놓았을 때는 쾌를 느끼게 된다"고 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해보면 비극이란 아무리 고통스럽고 연민의 정이 느껴질지라도 인간의 정서의 고통이 쾌를 파괴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곧 흥미롭고 중요한 모방이기 때문이라고 한 것과 같다.³⁾

조금 더 살펴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령 어떤 사람을 심히 미워하다가 갑자기 그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해방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의 『수사학』에서는 이를 '정상'에로의 '회복'이라고 한다.⁴⁾ 또한 비극에서 멜로디와 리듬을 즐기게 되는데, 이는 곧 감각활동이나 시를 낭송하는 데 있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처럼, 비극에서도 이와 같은 '사유나 관조'에서 발생하는 가능성으로 보았다.⁵⁾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을 진정한 시로 이해할 때 독자적인 방법과 정도로 성취될 것이다.

사실 인류 역사상 모든 거의 모든 철학자들은 미학(시, 예술)을 말했다. 단지 플라톤은 시는 모방에서 나오는 또 다른 모방이기 때문에 무시하기를 했다. 플라톤이 말하는 진정한 미는 예술을 뛰어넘는 형이상학적 미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시는 철학적 사색과 함께 언어적 '제작(製作 poiesis)'이 필수적이라고 본 것이다. 만일 이를 무시한다면 진정한 시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을 통해서 동류의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고 그것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일을 '쾌'라고 보았다. 즉 '시'는 곧 사람의 내면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비극悲劇적인 출발선에서 본 것이다.

1) 먼로 C. 비어슬리, 『미학사』, 이성훈, 안원현 옮김, (서울: 이론과 실천, 1999), p. 52.

2) 먼로 C. 비어슬리, p. 53.

3) 먼로 C. 비어슬리, p. 57.

4) 먼로 C. 비어슬리, p. 58.

5) 먼로 C. 비어슬리, p. 59.

2. 인간본성에서 출발한 ‘시는 맛을 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재현하는 동물이며 본성적으로 선율과 리듬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시가 태어나게 되었다’ 고 한다.¹⁾ 시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담론에서 ‘역사적으로 기술하는 관점’ 과 ‘철학적으로 추론하는 관점’ 이 공존한다.²⁾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에 대해 연민과 두려움을 재현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어떠한 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극 중에 등장하는 인물이 가지는 연민이나 두려운 감정에 대한 카타르시스(katharsis)³⁾를 재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특별히 ‘맛을 낸 언어’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리듬과 선율, 그리고 노래가 있는 언어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⁴⁾

아리스토텔레스는 ‘맛을 낸다’ 라는 말이 ‘기본 좋은(hêdus)’ 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 말은 음악에도 적용되며 요리의 맛을 내는 ‘양념’ 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 ‘양념’ 이라는 은유는 사실상 시에 대한 언어이론을 내포한다. 이 말은 굳터더기도 장식도 없는 별거벗은 언어는 기본 재료로써 외연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⁵⁾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맞다면, 시가 인간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라는 좁은 식견이나 반박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나 감정의 극치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필요로 하는 것 같다. 그 장치는 인간본성에서 기인한 이성적 감성인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성과는 다른 감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장치에 안착시킬 수 없기에 무시하였던 스토아철학과도 비슷한 생각인 것이다. 그것도

그러한 것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 철학의 기반을 닦아놓은 인물이었으며, 도리어 당시에 여자나 아이들은 이성적 동물에서 배제한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본성이 추구하는 바는 ‘어떤 기막힌 맛을 원하는 사람’ 이라면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그가 가진 생각이 ‘질서적인 규격에 답을 수 있는 장치’ 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3. 행복과 관련한 ‘시의 개연성’

행복이 인생이 주제라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자들은 어떠한 부류로 볼 수 있는가? 그들은 불행한 인생인가? 반드시 행복이 있어야만 인생에 최고의 지복인 것인가? 또는 시는 행복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시란 행복이라는 주제로 말할 수 있으며, 더불어 행복은 윤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윤리학의 주제는 성격(êthos)에 따라 이런저런 성품을 지닌 사람을 말한다. 특별히 자신의 ‘행위’ 를 통해 목표(telos)에 도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행위’ 라는 말은 활동만이 아니라 ‘행복’ 과도 상응하는 말로 대신할 수 있다.⁶⁾ 아리스토텔레스는 시 창작면에서 ‘개연성’ 이라는 ‘있음직한 것’ 의 필연성의 한 형태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를 시적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보았다. 다른 측면에서는 인생에 있어서 기대하지 않았던 경우의 수를 대비하여 개연적인 틀로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았다.⁷⁾

인생에게 행복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모든 인간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 과정에 있어서 선한 삶을 따라서 원하는 도덕적 삶을 살고 있는

1)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로즐린 뒤풍록, 장 칼로 서문/주해, 김한식 옮김, (서울: 임프린트 썬클래식 코리아, 2010), p. 95.

2) 아리스토텔레스, p. 112.

3) 아리스토텔레스, p. 144-45. 비극이라 할지라도 ‘재현(dia mimê seô)’ 에 의해서 이루어진 쾌락은 즐거이의 짜임새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기괴함은 관객을 확실하게 전율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극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 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 비극 자체에 정화된 대상들을 관객의 시선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아리스토텔레스, p. 131.

5) 아리스토텔레스, pp. 150-51.

6) 아리스토텔레스, p. 165.

7) 아리스토텔레스, p. 181.

사람도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쾌락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인생의 삶의 규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진리를 추적하며 선을 통해 행복을 느끼며 그 중심에 예술이라는 미를 동반하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삶일 것이다. 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적 개연성에 대해서 전반적인 인생의 삶의 재료를 시로 승화시키기 원했던 것이다.

4. 시의 '내적 미'와 독자들이 보는 '크기'의 뜻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은 시의 창작 기술 안에서 문맥과 유리(有利)되어 나타나는 미(美, 'kalon')에 대한 정의를 모호한 개념이라고 말한다. 이 모호성은 둘로 나뉘는데 '배치와 크기'라고 할 수 있다. '배치'는 '미의 내재적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크기'는 바라보는 사람들과 관련하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물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우냐에 달린 것이기에 그의 『형이상학』에서 이것을 '수학적 존재들의 아름다움'에 부여하였다.¹⁾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란 '실제로 일어난 일이나 개연성과 필연성의 질서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시인이란 운율을 만들어내는 사람보다는 '줄거리를 만들어내는 사람(*poiètèn tôn metrôn*)'이라고 했다. 이 말은 뫼토스를 만들어내는 시인으로서 설득력있는 개연성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²⁾ 그러나 플라톤은 『국가』 3권에서 '감각적인 것인 시'는 도시에서 추방하고 철학자들에게 금해야 한다고 하여 아리스토텔레스와는 전혀 대립적이었다.³⁾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시에 대한 배치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 제한적이면서 무한한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말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나래를 펼칠 수 있을 만큼 펼치기를 원하는

말이다. 다만 자유로운 상상에 맡겨진 시적인 감흥은 다시 이성 안에서 배치되어야 하고 이것은 개연성 있는 작품으로 표출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독자는 이해의 지평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규격을 갖춰 주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참으로 쉽지 않은 말이지만 이를 시로 승격시키기 위해서는 더욱더 어려운 과정일 수밖에 없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무시할 수 없음을 어찌면 그의 사상적 기반이 시적인 풍요로움으로 연결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5. 재현(*mimoumenon*) 안에서 시적인 '아름다움'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적인 시를 토대로 하여 시인과 시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특별히 서사시에 대한 그의 설명은 기묘할 정도로 탁월하다. 그의 말은 고급스럽지만 크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못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는 언어로 구사하면서 '시란 무엇인가'를 설명하였다. 그가 말하는 시란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첫째,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부성을 타고 난다고 한다. 둘째, 명확한 어조와 문맥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한 추론을 줄거리(뫼토스)화 하여 내용과 조화 있게 연결해야 한다. 즉 문장 구성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면밀하게 통일적인 체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더불어 '시의 맛'을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위적인 시는 배제하고 독자로 하여금 '행복을 줄 수 있고,' '치료적 효과를 안길 수 있는 시'라야 좋은 시다. 그는 이것을 고유한 형상을 복원한다는 의미로써 재현은 동사적인 형태로 표현되면서 동시에 문장의 통사론적 구조로 볼 수 있다고 했다.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그 구성이 복잡하고 매우 주도면밀하여 책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1) 아리스토텔레스, pp. 182-83.

2) 아리스토텔레스, pp. 209-210.

3) 아리스토텔레스, p. 203.

4) 아리스토텔레스, p. 97.

물론 시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필자는 종합적인 체계로 쓴 시라야 시로 인정해야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동의한다. 더불어 그는 현재 상태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진부한 문장이나 감각은 떨어진 ‘시’ 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시란 어떤 시인가? 그는 비극을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비극이 안겨주는 연민이나 불안, 두려운 실체를 쾌감으로 바꿀 수 있는 환원 장치가 걸려 있는 ‘시’ 라야 진정한 시라고 했다. 더 설명하자면 현상을 넘어 개연적인 상황을 도출하되, 그것이 아름다움으로 곧 ‘미’ 로 승화될 때라야 시로써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그 미는 또한 행복과 연관되며 인간다운 삶의 방향을 지시할 수 있어야 한다.

III. 칸트의 미학

1. 미적 감각인 ‘재현과 자유’

바움가르텐이 ‘미학(Aesthetica, 아름다움의 본질을 추구하는 공부)’ 이라는 말을 사용한 후에 칸트는 『판단력비판』에서 미감적 판단의 독특성을 ‘지성과 상상력의 자유로운 유희의 결과’ 라고 하였다.¹⁾ 칸트는 “예술적 창조의 정신은 도덕적 이념과 결합하는 데서 최고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고 한다.²⁾ 아리스토텔레스가 장르의 구별에 대해서 재현대상에 따른 무차별적인 재현현상을 말했다면, 칸트는 이에 자유를 덧붙였다. 이는 더 세밀하게 고찰(考察)하자면 칸트나 위에서 보았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것은 문체다.

이 문체는 우리가 말하는 ‘스타일(style)’ 로 꾸며지는 절대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대상이나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규정되지 않음을 의미한다.³⁾ 그렇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술이란 ‘자신

의 독특성을 통해 소통 가능한 보편성을 산출하는 한에서 예술로 인정한다’ 는 것이다.⁴⁾ 곧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재현(여기서 재현방식은 포함되지 않음)에다 자신이 가지는 특정한 감성형식과 그것에 따른 대중성이다.

2. 시는 예술 중에 ‘으뜸’

칸트는 인간의 지적, 미, 감각, 도덕, 윤리를 통틀어 예술로 승화할 수 있다면, 그 예술 가운데 미감각 이념을 현시하는 능력을 가장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시(poet)를 단연 최상의 자리에 위치시킨다.⁵⁾ 그는 ‘미적 예술’ 에서 천재는 자연미를 낳는 규칙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된 자유와 함께 자신이 뜻하는 바를 표현해 낼 수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천재란 ‘자연의 총아(寵兒)’ 라는 말을 사용하여 작가가 자연을 통해서 품어내는 독창성과 원본성이 구현되는 것으로 보았다.⁶⁾

칸트의 사상을 정리할 수 있는 말로써 ‘지각 없는 개념은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지각은 맹목이다’ 라고 할 수 있다. 지각은 곧 이성이며 개념은 그 이성을 사용하여 정리한 틀에 부어서 빚어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매우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이다. 참된 것은 자연의 이치로 알 수 있는 것보다는 인간의 이성이 이를 증명해주며 그것이 인간의 사유와 오성을 통해서 빚어낸 것이라야 한다. 이는 비평적 사고와 함께 예술적 사유가 동반할 때는 더욱 그렇다고 본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칸트가 예술 중에 최고인 것을 시로 손꼽았다면, 시는 그저 자연에서 베껴서 옮겨놓은 한 장의 그림이 아니라 예술적 터널을 지나 각고의 끝을 통해 아름답게 빚어진 하나의 진주를 연상케 한다.

1) 서양근대철학회, 『서양근대미학』 (파주: 창비, 2012), p. 28.

2) 서양근대철학회, p. 307.

3) 서양근대철학회, p. 30.

4) 서양근대철학회, p. 31.

5) 서양근대철학회, p. 304.

6) 서양근대철학회, p. 302.

3. 시와 철학의 관계

칸트는 서양미학사의 선구자 역할을 한 비움 가르텐 이후, 미학 역사에서 지성과 상상력의 자유로운 유희에서 성립하는 세계가 바로 서양 미학사라고 하였다. 그는 학문으로서의 미학을 발전시켰으며, 그 가운데서 '시'에 대한 독특한 사랑의 방식으로 철학과의 체계적 연관 속에서 상상력의 자유를 만끽하기 원했다. 칸트가 일구어 놓은 '미학과 철학의 만남의 장' 이후에 미적 예술론의 셸링의 낭만주의 미학의 근간이 되었다.¹⁾ 이제 칸트는 그가 확립한 시와 철학의 만남이 플라톤 이후에서 근현대철학까지 다리 역할뿐 아니라 시적 철학의 근간이 되었던 것이다. 비어슬리에 의하면, 그의 미학 이론은 철학체계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일부분으로 만든 최초의 근세 철학자였던 것이다.²⁾

4. 시작(詩作, *Dichten*)의 즐거움

칸트는 어떤 예술을 구상하는 힘은 감각에로의 주어진 대상을 포착할 때 객체의 일정한 형식에 속박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 한에 있어서 시작(詩作, *Dichten*)은 자유로운 유희를 하지 못할 수 있다. 반대로 대상이 된 구상력 그 자신이 자유롭게 방임되어 있다면, 오성의 합법칙성 일반과 조화되도록 만들더라도 할 것 같은 형식일 것이라고 했다.³⁾ 이 말은 어려울 수 있으나 목적 없는 합목적성(合目的性)의 개념이 해결을 제공할 수 있다면 오히려 대상에 대해 자유로운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곧 관조적 현상을 통해서 여유와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시작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칸트는 '이 장미는 아름답다'라는 말은 주관적인 미적이며 직관적인 판단으로 유희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⁴⁾ 그러나 '모든 장미는 아름답다'라는 말은 오성(이성)과 구상력간의 상호 조화를 이루게 하는 확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미

적 관점에서는 보편성의 성질을 띠고 그 가치를 하락한다고 보았다. 칸트가 말하는 것은 비확정적(indeterminate) 언사(言辭)를 통해서 절대적인 미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다.⁵⁾ 즉 어떤 인식의 행위를 떠나고 상상력의 일반을 넘어 독특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야 했다.

위에서 잠깐 어려운 듯 보이는 비확정적 언사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어떤 규칙적인 것에 질서를 가진 것을 넘어서 자유로운 형식을 갖추되 그 자유로운 형식마저 역설적 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칸트가 위에서 말한 '이 장미는 아름답다'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칸트 식으로 한다면 '이 장미는 아름답지 않다'라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걸치레를 해서 자신을 꾸밀 수밖에 없음을 현상에 내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장미 스스로가 일구어낸 노력의 대가'가 현상 속에 드러난 것은 '장미의 아름다움'이다.

III. 결론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시학은 인류사에 길이 남을 만한 기념비인 비극이라는 주제를 따라 예술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칸트는 분석적 종합 판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현상까지 다다를 수 있는 길은 도덕적인 아름다움이라고 보았다. 이에 미적 분야에서 시가 최고라고 본 것이다. 두 사람의 입장을 고려할 때 '시'란 인간이 지닌 언어적 산물이며 예술이다. 인간 생활에 있어서 언어는 참으로 중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8권에서 '음악'은 첫째가 유쾌한 것으로써 성격의 취향(윤리적, 실천적 선율, 열정적)이나 성향과 일종의 유사 관계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이 대목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의학적 은유가 갖는

1) 서양근대철학회, p. 311.

2) 먼로 C. 비어슬리, p. 242.

3) 먼로 C. 비어슬리, p. 249.

4) 먼로 C. 비어슬리, p. 246.

5) 먼로 C. 비어슬리, p. 247.

중요성은 의학 요법을 참조하여 음악의 쾌락 효과를 설명하였다.¹⁾ 비슷한 맥락은 비극적 산물은 '쾌'를 산출한다고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시도 마찬가지로 미학으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피력한다. 더불어 시인은 선천적으로 타고난다고 했다.²⁾ 칸트는 그의 미학에서 시(詩)란 아름다움(*das Schöne*)에 대한 숭고의 미가 철저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했다. 칸트는 시란 재현과 함께 자유의 미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철학사에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두 인물에 대해서 감히 졸자가 무슨 말을 어떻게 덧입히겠는가? 다만 이들도 인간인지라 어딘가에 분명히 한계선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시가 예술로서의 본래적 유용성, 즉 화용론에 대해서는 뒤떨어진 사유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시의 화용론의 의미는 본래 작가와 청자 간의 소통이라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고대와 근대의 철학적 사유의 만남을 꾀하고자 한다. 그렇게 할 때 재현과 자유를 넘어서 '소통'과 '유희'라는 관점으로 시적 미학이 격상될 것이다.

김. 서울: 임프린트 펭귄클래식 코리아, 2010.

References

- [1] Association of Modern Western Philosophy, "Modern Western Aesthetics", Paju: Changbi, 2012 서양근대철학회. 『서양근대미학』. 과주: 창비, 2012.
- [2] Monroe C. Beardsley, "History Aesthetics", S.H. Lee, W. H. Ahn, Seoul: Theory and Practice, 1999 먼로 C. 비어슬리. 『미학사』. 이성훈, 안원현 옮김. 서울: 이론과 실천, 1999.
- [3] Aristotle's, "Aristotle's Poet", Hansik Kim, Seoul: Imprint Penguin Classic Korea, 2010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로즐린 뒤풍록. 장 랄로 서문/주해. 김한식 옮

1) 아리스토텔레스, p. 147.

2) 아리스토텔레스, p. 192.